

격려사

제2회 불교미술 일섭문도전인 ‘불모들의 향연(饗宴)’ 개최를 축하합니다.

생명의 기운이 꽃향기로 가득한 3월을 맞아 일섭문도전에서 장인의 작품을 다시 볼 수 있게 되어 축하와 격려의 마음이 가득합니다. 급변하는 현대사회의 모습과 달리 불교미술은 승가의 화두정진(話頭精進)과 같은 오랜 세월의 인고가 아니면 대중의 깊은 마음까지 움직이는 감동을 이끌어 내지는 못할 것입니다.

현재 전승되고 있는 수많은 불교미술은 민족의 얼과 혼이 담긴 매우 귀중한 자산입니다. 어느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던 길을 묵묵히 걸어오신 여러분이 없었다면 오늘날의 불교미술은 상당한 퇴락의 길에 있었을 것입니다.

일섭스님께서서는 불교미술의 다양한 분야에 능통하셨고, 다방면의 재능있는 제자들이 그 문하에 모여 전국 크고 작은 사찰의 불사에 참여하여 현장경험을 체득하게 해주셨습니다. 이제는 그 제자들 또한 전국 각지에서 활발한 불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 3대, 4대에 이르기까지 그 문도들이 대를 이어 스승의 가르침을 익히고 이어나가는 모습이 참으로 아름다운 일이라 하겠습니다. 문도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고 수행정진의 마음으로 진력하는 여러분이기에, 앞으로 한국불교미술에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명성이 뚜렷한 장인이나 그 문하에서 열심히 정진하는 촉망받는 장인들이 함께 불모들의 향연에 참여하고 있으니, 마치 부처님이 연꽃을 들어 가섭존자가 미소를 짓는 모습처럼 문도들 모두가 큰 뜻을 이루어가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사찰의 불사를 완성하여 점안(點眼)하는 날에는 空과 色이 서로 융통하고, 하나와 여럿이 걸림 없으며, 여러 모양은 다 만덕(萬德)의 얼굴이 나타나고 온갖 형상은 천복(千福)의 모습을 완연하게 드러내어 실로 영산(靈山)의 법회장(法會場)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으로 장엄한 오늘의 법회장에서 지혜로움과 너그러움이 많은 사람들에게 고스란히 전해지길 바랍니다. 나아가 오랜 전통을 이어가는 일섭문도회의 정진과 공덕이 한국 불교미술의 밝은 빛이 되고 사회의 행복으로 회향하기를 기원합니다.

불기2559년 3월 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승